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初等學生의 政治意識 構造 分析

- 5·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朴 申 瑛

2002年 8月

濟州道 初等學生의 政治意識 構造 分析
- 5·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朴 申 瑛



朴申瑛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長	印

<국 문 초 록>

濟州道 初等學生의 政治意識 構造 分析
- 5·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

朴 申 瑛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韓 錫 祉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정치의식 구조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 구조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치적 대상을 정치 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정치적 정향의 요소인 인지·감정·평가를 분석하였다.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를 바탕으로 정치의식 형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표집방법은 제한표본추출(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군집표집방법 (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초등학교의 학생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4개 학교, 서귀포시 지역 2개 학교, 북제주군 지역 3개 학교, 남제주군 지역 2개 학교 등 총 10개 학교 초등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통계치는 백분비(%)와 χ^2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정치의식 구조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와 감정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평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주체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와 평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감정적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5·6학년(49.4%)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36.0%)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를 보면 매스미디어, 교사, 부모, 동료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 매체는 매스미디어, 부모, 교사, 동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정치적 지식을 얻고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지식을 얻을 때는 교사의 영향을 받고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의식 구조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 차원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가적 일체감도 잘 형성되어 애국심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투입과정의 요소 중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바르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정치집단의 분파주의, 여야 간의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 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청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과거 복지부동의 자세와 권위주의·형식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주체에 대한 정치의식은 감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초등학생 집단에서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다섯째, 정치의식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체는 매스미디어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2차적 혹은 보완적인 것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로 파악해야 한다.

目 次

I. 序論	1
II. 理論的 背景	5
1. 政治意識의 概念과 構造	5
2. 政治意識의 形成	10
3. 先行研究 分析	14
III. 研究 方法	16
1. 分析 方法	16
2. 調査 道具	17
3. 標集 및 資料 處理	18
IV. 結果 및 論議	21
1. 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21
2. 投入過程에 대한 政治意識	26
3. 產出過程에 대한 政治意識	31
4. 政治主體에 대한 政治意識	36
5. 政治的 關心의 時期와 媒體	42
IV. 要約 및 結論	48
參考文獻	53
Abstract	55
附錄	59

表 目 次

표 1. 정치의식 구조 분석모형	9
표 2.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17
표 3. 지역별 질문지 실시 및 회수(율)	18
표 4.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19
표 5. 정치체제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22
표 6. 정치체제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23
표 7. 정치체제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25
표 8. 투입과정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27
표 9. 투입과정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28
표 10. 투입과정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0
표 11. 산출과정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1
표 12. 산출과정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3
표 13. 산출과정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5
표 14. 정치주체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6
표 15. 정치주체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8
표 16. 정치주체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39
표 17. 정치의식 구조 분석결과	41
표 18.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43
표 19.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44
표 20.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46

I. 序 論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정치인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정책 시행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인가? 정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소극적인가? 등의 질문은 그 사회의 정치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민들은 나름대로 국가적 일체감을 갖기도 하며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나 정치지도자를 평가하는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정치를 보는 독특한 가치체계, 신념, 감정, 태도, 행동양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치를 불신·혐오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도 있다. 또한 사람들은 특정한 정치이념을 갖기도 하며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 사회의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 태도 등 정치의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에 의한 사회형태의 변화와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화의 진행으로 인해 개인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즉,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의 구속으로부터 개인의식의 해방은 정치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개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현대정치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정치의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¹⁾

사람들은 어떤 정치행동을 선택할 때 의견, 판단, 인상(image), 감각 등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의 정치행동을 결정케 하는 이와 같은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政治的 事象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람

1) 이극찬(1999), 「정치학」, 법문사, p.287.

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여 「정치의식」이라고 부른다.²⁾ 정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 정치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정치권력에 대한 인상, 정치적 요구에 대한 감각적 반응 등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정책과 권력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취하게 하며 또한 일정한 행동도 선택하게 한다. 즉, 정치의식은 정치적 결정을 행할 때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준거의 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치의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인가?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성격이나 태도가 결정된다는 생물학적인 입장과 사람의 성장 환경을 중요시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 혹은 문화가 그의 정치의식 형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정치의식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에 의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간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정치양식과 행동양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사회화이다. 개인은 특정사회의 정치체제 속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정치체제와 현상을 인지하고, 특정체제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일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정치의식을 갖게 되느냐가 한 나라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초등학교 시기는 개인의 인성, 사회적 태도,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도슨(R.E.Dawson)은 성인 이전 시기의 정치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린이 후기(9-13세)는 개인의 정치적 지각(political perceptions)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

2) 상계서, p.288.

문에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³⁾

정치사회화를 통한 초등학교 시기의 바람직한 정치의식 형성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키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우리의 풍토에 맞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치의식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미래 정치활동의 주체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여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한 정치의식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화를 통한 정치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정치의식 구조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대상을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정치적 정향의 요소인 인지·감정·평가를 분석하여 정치의식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를 통하여 정치의식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가정의 생활 정도별, 아버지의 학력별에 따라서 정치의식 구조와 형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정치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나 본 조사에서는 정치의식에 관한 측정변인으로 정치체제·투입과정·산출과정·정치적 주체의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정향의 요소인 인지, 감정, 평가로 국한하였다.

둘째, 정치의식 형성에 관한 내용을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정치지식을 얻는 매체,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로 국한시켰다.

3) R.E. Dawson의(1977), *Political Socializ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pp.2~4.;김재영(1981),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p.116에서 재인용

Ⅱ. 理論的 背景

1. 政治意識의 概念과 構造

정치의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비슷한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 규정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의식을 좁은 의미로 보아서 정치적 의견이나 이론, 이데올로기의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경우와 이를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自我 내의 自律性, 가치의식 및 심층에 있는 무의식의 측면까지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정치의식에 있어서 의식을 政治的 定向과 비슷한 말로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감정·평가의 세 범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⁴⁾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있는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함의영은 정치의식을 政治人, 政治思想에 대해 갖는 認識, 評價, 態度를 총칭하는 말로 표현하였다.⁵⁾

정윤무는 정치의식을 政治的 思想을 형성하는 정도라고 표현하였으며, 이 정치의식의 형성 과정을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라고 했다.⁶⁾

정치학 대사전에는 정치의식을 政治的 事象과 政治問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의 총체이며, 정치적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판단·인상·감각 등의 정신작용으로 기술하고 있다.⁷⁾

이극찬은 정치의식을 政治的 事象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⁸⁾

정치의식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정치문화의 정의를 보면, 파이(Lucian W. Pye)는

4) 이극찬(1984), 「정치학」, 법문사, pp.229~232.

5) 함의영(1972), “정치의식의 민주화”, 「논문집」 제5집, 연세대학교, p.63.

6) 정윤무(1983), 「현대 정치심리론」, 박영사, pp.12~13.

7) 정인홍 외(1983), 「정치학 대사전」, 박영사, pp.1348~1350.

8) 이극찬(1999), 전계서, p.288.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체제내의 행태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가정과 규칙을 제공하는 제태도·제개념과 제감정의 집합이라고 정의했다.⁹⁾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버바(Sidney Verba)는 정치문화란 정치체제가 국민들의 認知·情意·評價의 측면에서 내면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한 국가의 정치문화는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특수한 政治類型의 문제라고 했다.¹⁰⁾

그러면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치문화는 「여론」이나 「국민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집합된 대표적인 태도나 신조(특정한 정치사회의 집합적인 마음가짐)인 데 반하여, 정치의식은 개인의 태도나 신조를 지칭하는 태도 사용된다.¹¹⁾

정치적 定向은 정치문화이론에서 분석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定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일정한 행동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政治的 定向이란 정치적 자극에 대해 정치상황 속에서 일정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性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통, 역사적 경험, 동기, 규범, 감정, 상징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¹²⁾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적 정향에 대한 개념을 ① 개인이 정치현상을 지각하며 해석하는 방법, ② 정치적 평가의 기준, ③ 정치제도나 정치인에 대한 느낌 등으로서 파악하고 있다.¹³⁾

또한 알몬드와 버바는 파슨즈(Talcott Parsons)와 실즈(Dwards Shils)에 따라 政治的 定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분류하였다.¹⁴⁾

첫째 認知的 定向(cognitive orientation)이란 정치체제, 그의 역할 및 역할 담당자,

9) Lucian W Pye(1980), "Political Culture", David I.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2, p.218.; 이극찬(1997), 「정치학」, 법문사, p.302에서 재인용

10)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196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4~15.; 박용현(1980), 「한국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310에서 재인용

11) 이극찬(1999), 전계서, p.294.

12) Dennis Kavanagh(1972), *Political Culture*, Macmilan, p.11.

13) D.Easton & R. D. Hess(1960), "The Child's Changing Image of the President",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4, p.633.; 이극찬(1999), 전계서, p.297에서 재인용

14)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1965), *The Civic Culture*, little Brown and company, p.15.; 이범준·신승권 (1988), 「정치학」, 박영사, p.353에서 재인용

정치체제에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정치 지도자와 당면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말한다.

둘째, 感情的 定向(affective orientation)은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적 정향이 신념이나 사고를 내포한다면 감정적 정향은 감정과 느낌이 주 요소가 된다. 정치체제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호의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또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은 정치체제에 대해 만족감이 나 일체감, 또는 불만이나 불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셋째, 評價的 定向(evaluative orientation)은 정치체제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작용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¹⁵⁾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認知的 定向이나 感情的 定向과 구별된다. 즉 어떤 정치적 事象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갖게 된다해도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치사회의 不正腐敗를 보고 들으며 이에 대해 격분하면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도 여러 代案 중에서 왜 그러한 대안을 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평가적 정향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評價的 定向은 바로 이런 선택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정향은 정치체제와 그 역할, 역할 담당자, 투입-산출과정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감정적 정향은 정치체제와 그 역할, 운영 등에 대한 느낌 혹은 업무수행에 대한 느낌을 그리고 평가적 정향은 情報나 感情뿐 아니라 가치기준을 포함한 정치적 대상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말한다.¹⁶⁾

본 연구에서는 政治意識을 政治對象에 대한 政治的 定向 요소인 認知·感情·評價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식에서 '의식'을 정치적 정향과 비슷한 말로 보고 정치대상에 대한 인지·감정·평가의 세 범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입장을 취한다.

15) 이동희(1986), 「정치학원론」, p.205.

16) 이범준·신승권(1988), 전계서, p.354.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정치와 관련이 되는 모든 것은 정치적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상은 무한대로 존재한다. 즉, 국가·정부·정당·이익단체·법·의회·매스컴·선거·민주주의·경찰·시민·대통령·지방자치·애국심과 같이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모든 개념들은 정치적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대상은 거의 무한대에 이르지만, 그것을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분류는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것으로 ①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체제(system as general objects) ② 투입대상(input objects) ③ 산출대상(output objects) ④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self as active participant)으로 나눈 것이다.¹⁷⁾

정치적 대상 중에서 정치체제는 국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정치체제 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한국정치체제를 민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민주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트(David. Easton)은 정치대상의 요소인 정치체제를 정치적 공동체, 정치제, 정부로 분류하였다.¹⁸⁾ ‘정치적 공동체’는 대개 국가와 같은 뜻으로, 시민대중의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애국심, 민족주의 등의 말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제’란 대체로 헌정질서 혹은 정치적 권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전제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 등 여러 형태 체제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당이 체제의 政策決定 機構를 통제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권담당자에 의하여 그 정책이 수행되느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입대상은 정치체제의 투입측면을 말한다. 즉, 의회·정당·이익집단·정치엘리트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결정의 구조와 역할이다. 투입대상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변수들을 말한다.¹⁹⁾

산출대상은 政策執行과 관련된다. 즉, 정부의 규제(regulation), 추출(extraction),

17) 이정식 외(1994), 「정치학」, 대왕사, p.246.

18) 김재영 외 (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형설출판사, pp.9~10.

19) 이정식 외(1994), 전계서, p.247.

분배(distribution)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정책집행에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정부의 능력,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통성 확립과도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개인이 갖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느낌·평가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능동적인 정치행위자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수동적인 권력 순응자로서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한 사회의 민주발전의 잠재역량을 가늠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를 「정책결정과정」의 연쇄로서 본다면 정치에 요구가 「정책결정기구」에로 흘러 들어가는 「투입과정」(input)과 그와 같은 에너지가 「정책결정기구」를 여과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으로 결실되어 그것이 사회에로 흘러 나오는 「산출과정」(output)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결합한 것을 「정치체제」로 생각한다면 거꾸로 이 두 과정을 분해하여, 그 공통분모로서 검출되는 것은 개개의 「정치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개의 요소, 즉 「정치체제」·「투입과정」·「산출과정」·「정치주체」에 대하여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지식·감정·평가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앞으로써 그들의 정치의식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표1> 政治意識 구조 분석모형

정치적 대상 \ 정치의식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
인 지	+또는 -반응	+또는 -반응	+또는 -반응	+또는 -반응
감 정	"	"	"	"
평 가	"	"	"	"

자료: 이극찬(1999), 「政治學」, 法文社, p.289.

20) 이극찬(1999), 전계서, p.289.

2. 政治意識의 形成

개인의 정치의식은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나 성격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정치의식은 정치사회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사회화란 그 사회의 정치문화를 구성원들에게 전승해 주는 과정이며, 또한 정치생활 양식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정치사회화란 政治文化에의 誘導 과정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회성원이 일정한 정치적 정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이다.²¹⁾ 정치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정치의식은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경험을 통해 발전·변화되거나 또한 강화된다.²²⁾

도슨(R.E.Dawson)은 성인의 정치생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사회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사회화 단계를 성인 전 정치학습(preadult political learning)단계와 성인의 정치학습(adult political learning)단계로 구분하여 정치학습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모형을 제시하였다.²³⁾

성인 전 정치학습은 ①어린이 초기(early childhood; 5-9세) ②어린이 후기(Late childhood; 9-13세) ③ 청소년기(adolescence;13-18세)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어린이는 사회환경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학습을 시작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정치세계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국가에 대한 애착, 국가와 일체감, 국기의 상징에 대한 느낌 등이 어린이 초기에 형성되는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형성된 국가의 정치적 상징에 대한 태도의 내용은 감정적이고 막연하며 그리고 애착의 형태를 띤다고 한다.

21) 이극찬(1999), 전계서, p.297.

22) 김재영(1981),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pp.111~112.

23) R.E. Dawson의(1977), *Political Socializ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pp.2~4.; 상계서, pp. 115~116에서 재인용

그 외에도 어린이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결정, 사회집단의 일체감과 애착, 계급·민족에 대한 감각, 정치지도자의 권위나 역할에 대한 정향의 발전, 정치적 인물 등에 대하여 알기 시작한다고 한다. 어린이 초기의 정치적 정향은 주로 감정적이거나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어린이 후기(9-13세)는 개인의 정치적 지각(political perception)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10-11세 어린이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자각으로부터 보다 더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 11-13세까지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향, 정치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치·사회관계를 이해하는 기초능력의 획득 등이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갖는 정치적인 아이디어는 성숙한 성인들이 갖는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나 지각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²⁴⁾

그런데 정치의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되는가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식은 개인, 사회의 구조, 기구 혹은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화 기구가 개인에게 정치적 정향을 전달하여 개인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이념을 자녀들에게 알리거나 학교에서 국가에 대한 좋은 점을 강조하여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 스스로 정치의식과 정치적 관계, 정치에 대한 특별한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치에 대한 제 각각의 견해를 갖는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경험, 개인의 이해력과 이성능력 등이 정치학습의 상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치세계로부터 받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4) 상계서, p.117.

개인들의 정치의식을 형성하는 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사회화 매체를 들 수 있는데 특히 가정과 학교는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기본 媒體이다. 또한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해 감에 따라 동료집단이나 매스미디어 등이 정치사회화 매체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가정은 의도적으로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만 개인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화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다. 즉 가정은 사회의 모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여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모든 방법을 결정지어 주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다. 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政治感覺과 定向이 배태되는 곳이다. 사람의 어떠한 정치의식을 갖게 되느냐는 그가 자란 가정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²⁵⁾

많은 연구결과는 자식은 부모와 유사한 정치적 태도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정의 집단적 결정에 참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린이가 정치적 대상에 대해 갖는 의식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상호작용에 익숙케 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²⁶⁾ 즉, 가정은 정치적 정향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²⁷⁾

학교라는 2차적 매체는 흔히 가정환경에서 확립된 태도나 행위유형을 支持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치적 정향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는 정치적 再社會化가 이루어진다. 가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더욱 훌륭한 정치의식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학교에 있어서의 흥미와 참여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킨다.²⁸⁾

학교는 정치의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과과정, 교실 내의 의식생활, 교사의 역할 등을 통하여 아동들은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도덕, 사회 등의 과목을 통하여 정치세계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역할,

25) 김재영 외(1990), 전계서, pp.238~239.

26) 이동희(1986), 전계서, pp.212~213.

27) 김재영(1981), 전계서, pp.119~125.

28) 김재영 외(1990), 전계서, p.243.

정치제도, 정치관계, 정치적 가치와 태도, 공공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배운다.

동료집단은 자신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의견과 정치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은 그들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집단과 공통적인 의견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²⁹⁾ 특히 도시화된 지역과 같이 가정의 결속이 적어지고, 혹은 가정교육이 사회환경과 조화가 안 될 때 동료집단이 개인의 정치의식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다.³⁰⁾

동료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집단과 개인간의 기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의 갈등이 개인의 태도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개인은 집단의 가치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집단의 가치에 집착할수록 그 집단의 중요성은 크다. 따라서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은 그 집단의 가치에 쉽게 동화된다. 그리고 집단의 가치에 대한 동화의 정도가 크면 그만큼 사회화의 정도도 크다.³¹⁾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컴퓨터 등의 대중매체는 정치의식의 형성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치의식 형성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면서 대중 매체는 정치적 정향의 형성과 관련된 엄청난 정치적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매일 매일의 정치적 쟁점과 국민적 관심사가 보도되어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의 여론에 대한 동향, 정당활동, 국가지도자의 동정,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든 그렇지 않든 자동적으로 정치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매스미디어의 메시지들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경향의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매

29) 백완기(1988),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 이영희 외 「현대 정치 과정론」, 法文社, p.84.

30) 김재영 외(1990), 전개서, pp.246~247.

31) 이영호(1978), 「현대정치과정론」, 법문사, p.80.

스미디어는 일반적인 정치적 문제와 사건을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지도자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감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³²⁾ 결국 매스미디어는 정치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의 형성요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언제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정치적 지식을 얻고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先行研究 分析

우리나라의 정치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연구범위도 정치의식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정치관, 정치적 태도, 국가관, 안보의식, 북한관들을 다루거나 정치의식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³³⁾

그 대표적인 연구로 박종남은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치적 발달 과정을 감안하여 일상과정에서 체험하고 학습한 내용과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자질과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국가·주인 및 애향의식, 애국활동과 정치나 자치활동에 참여의식, 민주시민의식, 정치인에 대한 신뢰 및 관용의식, 정치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소외계층에 대한 안보 및 통일에 대한 의식 등 11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認知的, 情意的, 評價的 측면을 고려한 설문을 작성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³⁴⁾

박용현은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정치의식을 크게 민족, 국가, 정치·사회, 통일·안보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들 영역의 관련요소들을 다시 體

32) 이범준·신승권(1988), 전거서 p.381.

33) 강철승(1999), “한국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p.7.

34) 朴鍾男(1997), “청소년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4.

制·過程·政策의 차원에서 총 27개의 하위개념을 설정하였다.³⁵⁾

강철승은 제주지역 전문대학생의 정치의식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 성장지별, 종교 등의 諸變因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알몬드와 포웰의 정치체계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이념, 일체감, 정치적 기구, 참여, 정치지도자, 준법, 복지, 안보, 정치적 자유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³⁶⁾

그리고 허군진은 정치의식의 인식대상을 내용차원에서는 민족·국가, 정치·사회, 통일·안보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심리적 성향차원에서는 태도구성이론을 토대로 인지·정의·의지로 분류하여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³⁷⁾



35) 朴容憲(1980), “現代韓國人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思想과 論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30.

36) 강철승(1999), 전계논문, p.1.

37) 허군진(1994), “제주도 고등학생의 정치의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 9.

Ⅲ. 研究 方法

1. 分析 方法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 구조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제주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政治意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로 「정치체제」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요소인 정치적 공동체(국가), 정부, 정치체에 관해서 어떠한 지식, 감정, 판단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즉, 국가와 민주주의, 정부에 관한 개인의 지식·감정·평가를 알아본다.

둘째로, 「투입과정」 혹은 「정책결정기구」에 관한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면 정치가, 국회, 매스컴 등의 활동에 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그 기능에 관해서 어떤 감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셋째로 「산출과정」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출과정 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인 공무원, 도청, 정책시행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즉, 下向的 정책 집행과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결정 등에 관한 지식, 감정, 의견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넷째로 「정치체제」속의 일원으로서 정치주체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관해서 어떤 인지, 감정, 평가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즉, 정치체제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權利와 능력에 대한 느낌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調査 道具

<표- 2>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정치적 대상	정치의식	질문지 내용	문항 번호
정치 체계	지 식	민주주의 제도 대한 이해	9
	감 정	국가에 대한 느낌	1
	평 가	정부 노력 대한 판단	5
투입 과정	지 식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	10
	감 정	정치인에 대한 느낌	2
	평 가	국민 여론의 반영에 대한 판단	6
산출 과정	지 식	도청의 기능에 대한 이해	11
	감 정	공무원에 대한 느낌	3
	평 가	정책 시행에 대한 판단	7
정치 주체	지 식	정치주체에 대한 이해	12
	감 정	정치적 애착에 대한 느낌	4
	평 가	개인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판단	8
정치적 관심의 시기와 매체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13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	14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	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政治意識 構造 分析을 위한 질문지이다. 정치의식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적 대상을 정치체계,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정치적 정향의 요소인 인지·감정·평가에 관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를 알아보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설문 내용들은 김재영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강여정의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정치태도 분석’, 박종남의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 연구’, 허군진의 ‘제주도 고등학생의 정치의식’ 중에서 정치의식(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지·감정·평가)과 관련된 부분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이들 문항을 영역과 차원별로 제시하면 <표-2>와 같다

3. 標集 및 資料 處理

<표-3> 지역별 질문지 실시 및 회수(율)

지역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사용 불가능한 수	유효한 수	회수율(%)
제주시	320	310	10	300	96.8
서귀포시	150	140	3	137	93.3
북제주군	220	210	4	206	95.4
남제주군	160	150	13	137	93.7
합계	850	810	30	780	95.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방법은 제한표본추출(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군집 표집방법 (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제주도 초등학교의 학생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4개교, 서귀포시 지역 2개교, 북제주군 지역 3개

교, 남제주군 지역 2개교 등 총 10개 학교의 초등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2002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수는 810명이였다. 표집된 810명 중 질문지 전 문항에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 수는 780명이다. 따라서 최종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은 <표-4>과 같다.

<표-4>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배경변인	변인구분	인원	구성비(%)	계
성 별	남	408	52.3	780
	여	372	47.7	
학 년 별	5학년	389	49.9	780
	6학년	391	50.1	
거주지별	제 주 시	300	38.5	780
	서귀포시	137	17.6	
	북제주군	206	26.4	
	남제주군	137	17.6	
가 정 의 생활정도	상	258	33.1	780
	중	479	61.4	
	하	43	5.5	
아버지의 학 력 별	중 졸	59	7.6	780
	고 졸	397	50.0	
	대학교졸	243	31.2	
	대학원졸	47	6.0	
	없 음	34	4.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통계치는 백분비 (%)와 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1번에서 3번 문항은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배점하였고 4번에서 8번 문항은 ‘매우 많이’에 5점, ‘많이’에 4점, ‘조금’에 3점, ‘매우 조금’에 2점, ‘전혀 못함’에 1점으로 배점하여 반응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9번에서 12번 문항은 정답에는 5점, 맞지 않은 경우는 0점을 주어 5점을 만점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방법은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 간의 백분비(%)를 가지고 각 문항 차원별로 종합 평균한 것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이 2.5보다 높은 경우를 긍정적(+반응)으로 해석하였고, 2.5보다 낮은 경우를 부정적(-반응)으로 해석하였다.

있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반응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유의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χ^2 검증을 적용시켜 유의한 차가



IV. 結果 및 論議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의식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적 대상을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가정의 생활 정도별, 아버지의 학력별에 따라서 정치의식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의식 구조 분석 모형에 따라 어떤 정치의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정치체제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는데 이들 문항을 인지, 감정, 평가로 분류하여 인지수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감정수준에서는 국가에 대한 느낌, 평가 수준에서는 정부 노력에 대한 판단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는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정치체제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	대통령의 역할	국회위원 의 역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계
780	2.71	2.49	12.8	13.7	19.4	54.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df	P	반응구분(%)			
					민주 주의 실현을 위한 법	대통령 의 역할	국회위 원의 역할	국민 들의 관심과 참여
성별	남	52.3	3	.000***	11.8	18.4	21.8	48.0
	여	47.7			14.0	8.6	16.7	60.8
학년별	5학년	49.9	3	.121	14.9	15.4	18.5	51.2
	6학년	50.1			10.7	12.0	20.2	57.0
거주 지별	제주시	38.5	9	.913	13.0	12.3	20.0	54.7
	북제주군	26.4			13.1	15.0	17.5	54.4
	서귀포시	17.6			14.6	14.6	16.8	54.0
	남제주군	17.6			10.2	13.9	23.4	52.6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6	.406	13.2	16.3	15.9	54.7
	중	61.4			12.3	12.3	20.7	54.7
	하	5.5			16.3	14.0	25.6	44.2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12	.122	20.3	10.2	11.9	57.6
	고졸	50.0			11.8	13.4	18.1	56.7
	대학교졸	31.2			15.2	13.2	21.4	50.2
	대학원졸	6.0			2.1	23.4	23.4	51.1
	없음	4.4			8.8	14.7	26.5	50.0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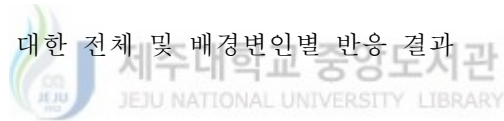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는 여학생, 6학년, 제주시에 거주하고, 가정에 생활 정도 수준이 상·중층이고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배경 변수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2)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체제의 요소 중에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은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정치체제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780	3.88	1.12	36.3	32.1	19.4	8.1	4.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df	P	반 응 구 분(%)					
					확실 히 그렇 다	그런 것 같다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 히 아니 다	
성 별	남	52.3	182 935	4	.001**	42.9	27.7	16.7	8.1	4.7
	여	47.7				29.0	36.8	22.3	8.1	3.8
학년별	5학년	49.9	11. 259	4	.024*	41.1	29.8	18.0	6.2	4.9
	6학년	50.1				31.5	34.3	20.7	10.0	3.6
거주 지별	제 주 시	38.5	21. 577	12	.043*	36.7	31.3	21.0	7.7	3.3
	북제주군	26.4				43.7	30.6	14.1	7.8	3.9
	서귀포시	17.6				35.0	30.7	21.9	5.1	7.3
	남제주군	17.6				25.5	37.2	21.2	12.4	3.6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17. 596	8	.024*	41.9	32.2	12.8	39.9	18.2
	중	61.4				0.8	7.5	25.5	39.9	26.3
	하	5.5				0.0	4.7	23.3	32.6	39.5
아버지 의 학력별	중 졸	7.6	13. 364	16	.646	37.3	35.6	22.0	3.4	1.7
	고 졸	50.0				37.0	32.0	19.4	8.3	3.3
	대학교졸	31.2				35.4	31.3	18.5	8.2	6.6
	대학원졸	6.0				31.9	40.4	12.8	10.6	4.3
없 음	4.4	38.2	20.6	29.4	8.8	2.9				

*:p <0.05, **:p<0.01, ***:p<0.001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학생, 5학년 학생, 북제주군지역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정치체제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 변인을 보면, 성별(P<0.01), 학년별(P<0.05), 거주지별(P<0.05),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5)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7> 정치체제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계
780	2.91	0.95	3.2	22.3	45.6	20.1	8.7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N	df	P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성별	남	52.3	844	4	.012*	3.9	26.7	41.9	18.4	9.1
	여	47.7				2.4	17.5	49.7	22.0	8.3
학년별	5학년	49.9	842	4	.008**	4.6	25.4	44.5	16.5	9.0
	6학년	50.1				1.8	19.2	46.8	23.8	8.4
거주 지별	제주시	38.5	424	12	.024*	2.7	21.0	41.3	22.0	13.0
	북제주군	26.4				4.9	27.7	44.2	18.0	5.3
	서귀포시	17.6				1.5	18.2	55.5	19.0	5.8
	남제주군	17.6				3.6	21.2	47.4	20.4	7.3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505	8	.036*	4.3	24.4	46.1	18.6	6.6
	중	61.4				2.9	20.5	46.8	21.1	8.8
	하	5.5				0.0	30.2	30.2	18.6	20.9
아버지 의 학력별	중	7.6	578	16	.000***	5.1	27.1	44.1	18.6	5.1
	고	50.0				2.8	22.7	48.9	18.1	7.6
	대학교졸	31.2				2.1	2.1	19.8	46.1	19.8
	대학원졸	6.0				12.8	17.0	23.4	38.3	8.5
	없음	4.4				0.0	35.3	38.2	23.5	2.9

*:p <0.05, **:p<0.01, ***:p<0.001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집단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P<0.05$), 학년별($P<0.01$), 거주지별($P<0.05$),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5$), 아버지의 학력별($P<0.001$)등 모든 배경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投入過程에 대한 政治意識

투입과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을 인지, 감정, 평가로 분류하여 인지수준에서는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인지, 감정수준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느낌, 평가 수준에서는 국민 여론의 반영에 대한 판단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1) 투입과정에 대한 인지



초등학생의 투입과정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투입과정에 대한 인지는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여학생, 5학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중인 학생, 아버지가 안 계신 집단이 다른 학생들보다 투입과정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 중에서 거주지별 ($P<0.01$)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배경 변수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표-8> 투입과정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활동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활동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법을 만들고 고치는 활동	
780	2.28	2.49	14.6	21.5	45.6	18.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χ^2	df	P	반응구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활동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활동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법을 만들고 고치는 활동
성별	남	52.3	3.919	3	.270	14.5	22.5	47.3	15.7
	여	47.7				14.8	20.4	43.8	21.0
학년별	5학년	49.9	1.015	3	.789	14.7	20.8	45.0	19.5
	6학년	50.1				14.6	22.3	46.3	16.9
거주 지별	제주시	38.5	22.747	9	.007**	14.7	18.7	43.0	23.7
	북제주군	26.4				12.1	21.8	51.5	14.6
	서귀포시	17.6				18.2	30.7	40.1	10.9
	남제주군	17.6				14.6	18.2	48.2	19.0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042	2	.097	15.9	19.4	45.3	19.4
	중	61.4				14.2	23.0	45.9	16.9
	하	5.5				11.6	18.6	44.2	25.6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12.302	12	.422	11.9	32.2	42.4	13.6
	고졸	50.0				13.9	22.4	46.1	17.6
	대학교졸	31.2				16.0	20.2	42.8	21.0
	대학원졸	6.0				19.1	14.9	48.9	17.0
	없음	4.4				11.8	11.8	61.8	14.7

*:p <0.05, **:p<0.01, ***:p<0.001

2) 투입과정에 대한 감정

<표-9> 투입과정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780	2.23	0.96	1.4	8.6	26.2	39.5	24.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df	P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52.3	186	.025*	2.2	10.5	27.5	35.8	24.0
	여	47.7			0.5	6.5	24.7	43.5	24.7
학년별	5학년	49.9	397	.000***	2.1	10.5	30.3	38.0	19.0
	6학년	50.1			0.8	6.6	22.0	40.9	29.7
거주지별	제주시	38.5	979	.116	1.0	7.7	24.0	38.0	29.3
	북제주군	26.4			2.9	10.2	25.7	43.7	17.5
	서귀포시	17.6			0.7	8.8	29.2	33.6	27.7
	남제주군	17.6			0.7	8.0	28.5	42.3	20.4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252	.019*	2.7	11.2	27.9	39.9	18.2
	중	61.4			0.8	7.5	25.5	39.9	26.3
	하	5.5			0.0	4.7	23.3	32.6	39.5
아버지의 학력별	중졸	7.6	164	.314	1.7	11.9	25.4	44.1	16.9
	고졸	50.0			1.8	7.3	27.0	41.6	22.4
	대학교졸	31.2			0.8	9.1	22.2	37.9	30.0
	대학원졸	6.0			0.0	12.8	31.9	27.7	27.7
	없음	4.4			2.9	8.8	38.2	35.3	14.7

*:p <0.05, **:p<0.01, ***:p<0.001

초등학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감정은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여학생, 6학년,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하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 보다 투입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투입과정에 대한 감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 변수는 성별($P<0.05$), 학년별($P<0.001$),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5$)이고, 거주지별과 아버지의 학력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3) 투입과정에 대한 평가

초등학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투입과정의 요소인 국민 여론의 반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이 6학년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하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학생 집단에서 다른 집단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중에서 성별($P<0.05$), 아버지의 학력별($P<0.05$)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0> 투입과정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계
780	3.38	0.98	11.8	34.9	37.6	11.4	4.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df	P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성별	남	52.3	10.752	.030*	15.2	35.7	38.8	9.5	3.9
	여	47.7			8.1	35.5	39.5	12.9	4.0
학년별	5학년	49.9	3.446	.486	12.1	35.7	38.8	9.5	3.9
	6학년	50.1			11.5	34.0	36.3	13.3	4.9
거주 지별	제주시	38.5	15.029	.240	12.3	34.7	36.7	10.7	5.7
	북제주군	26.4			15.5	37.9	33.5	11.2	1.9
	서귀포시	17.6			9.5	33.6	43.1	10.2	3.6
	남제주군	17.6			7.3	32.1	40.1	14.6	5.8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13.887	.085	14.3	33.7	37.2	9.7	5.0
	중	61.4			10.0	34.9	39.7	11.7	3.8
	하	5.5			16.3	41.9	16.3	18.6	7.0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30.483	.016*	8.5	28.8	54.2	6.8	1.7
	고졸	50.5			9.8	36.8	39.8	10.1	3.5
	대학교졸	31.2			16.0	33.3	32.5	12.3	5.8
	대학원졸	6.0			17.0	31.9	31.9	12.8	6.4
	없음	4.4			2.9	38.2	26.5	26.5	5.9

*:p <0.05, **:p<0.01, ***:p<0.001

3. 産出過程에 대한 政治意識

산출과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을 인지, 감정, 평가로 분류하여 인지수준에서는 산출과정의 요소인 도청의 기능에 대한 이해, 감정수준에서는 공무원 대한 느낌, 평가 수준에서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산출과정 대한 인지

초등학생의 산출과정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도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산출과정에 대한 인지는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정답 반응이 남학생의 정답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6학년의 정답 반응이 5학년의 정답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 생활정도가 하인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정답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1> 산출과정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계
			법을 만드는 일	도둑과 강도를 잡는 일	도민을 위 해 정책을 시행 하는 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	
780	3.75	2.17	9.7	4.2	75.0	11.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χ^2	df	P	반 응 구 분(%)			
						법을 만드는 일	도둑과 강도를 잡는 일	도민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
성 별	남	52.3	7.678	3	.053	9.8	5.9	72.1	12.3
	여	47.7				9.7	2.4	78.2	9.7
학년별	5학년	49.9	10.	3	.012*	12.9	4.6	70.4	12.1
	6학년	50.1	931			6.6	3.8	79.5	10.0
거주 지별	제 주 시	38.5	5.958	9	.744	10.3	4.3	72.3	13.0
	북제주군	26.4				9.2	2.9	77.2	10.7
	서귀포시	17.6				7.3	4.4	78.8	9.5
	남제주군	17.6				11.7	5.8	73.7	8.8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1.162	2	.078	12.4	3.9	72.9	10.9
	중	61.4				8.8	3.8	75.8	11.7
	하	5.5				4.7	11.6	79.1	4.7
아버지 의 학력별	중 졸	7.6	14.671	12	.260	15.3	1.7	66.1	16.9
	고 졸	50.0				10.1	2.8	76.8	10.3
	대학교졸	31.2				7.8	7.0	74.5	10.7
	대학원졸	6.0				12.8	4.3	70.2	12.8
	없 음	4.4				5.9	5.9	79.4	8.8

*:p <0.05, **:p<0.01, ***:p<0.001

그리고 배경 변인 중에서 학년별(P<0.05)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배경 변수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산출과정에 대한 인지는 고학년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과정에 대한 감정

<표-12> 산출과정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780	2.74	0.98	3.2	20.3	32.4	35.8	8.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df	P	반응구분(%)					
					확실 히 그렇 다	그런 것 같다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 히 아니 다	
성별	남 여	52.3	8.603	4	.072	3.7	22.8	33.1	31.4	9.1
		47.7				2.7	17.5	31.7	40.6	7.5
학년별	5학년 6학년	49.9	3.446	4	.486	4.4	23.7	31.9	32.6	7.5
		50.1				2.0	16.9	33.0	38.9	9.2
거주 지별	제주시	38.5	33.074	12	.001**	4.0	20.0	31.3	33.0	11.7
	북제주군	26.4				5.3	26.2	34.0	30.1	4.4
	서귀포시	17.6				0.7	13.9	34.3	40.9	10.2
	남제주군	17.6				0.7	18.2	30.7	45.3	5.1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23.547	8	.003**	4.3	25.2	30.6	31.0	8.9
	중	61.4				2.5	18.8	34.2	37.6	6.9
	하	5.5				4.7	7.0	23.3	44.2	20.9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16.780	16	.400	1.7	25.4	27.1	42.4	3.4
	고졸	50.0				2.3	19.6	34.3	36.8	7.1
	대학교졸	31.2				4.9	19.8	30.9	33.7	10.7
	대학원졸	6.0				6.4	21.3	35.2	27.7	8.5
	없음	4.4				0.0	20.6	26.5	38.2	14.7

*:p <0.05, **:p<0.01, ***:p<0.001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항상 공평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출과정에 대한 감정은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산출과정의 요소인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거주지별($P<0.01$)과 가정의 생활정도별($P<0.01$)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감정은 북제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가정의 생활 정도가 하인 학생이 다른 학생 집단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산출과정에 대한 평가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출과정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여학생, 6학년,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 생활정도가 하인 학생,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P<0.001$), 거주지별($P<0.01$),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1$)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변인에서는 유의한 점이 없었다.

<표-13> 산출과정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780	2.93	0.93	4.6	20.3	45.0	24.1	6.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df	P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성별	남	52.3	9.053	4	.060	6.6	20.8	44.1	23.3	5.1
	여	47.7				2.4	19.6	46.0	25.0	7.0
학년별	5학년	49.9	21.864	4	.000***	5.1	25.7	43.7	18.8	6.7
	6학년	50.1				4.1	14.8	46.3	29.4	5.4
거주 지별	제주시	38.5	32.983	12	.001**	5.3	17.0	40.0	31.0	6.7
	북제주군	26.4				7.3	27.7	42.2	17.5	5.3
	서귀포시	17.6				2.9	18.2	52.6	20.4	5.8
	남제주군	17.6				0.7	18.2	52.6	22.6	5.8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23.727	8	.003**	7.4	24.4	43.0	20.2	5.0
	중	61.4				2.7	18.2	47.4	25.9	5.8
	하	5.5				9.3	18.6	30.2	27.9	14.0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5.723	16	.991	6.8	25.4	39.0	23.7	5.1
	고졸	50.0				4.3	21.2	46.3	22.9	5.3
	대학교졸	31.2				4.9	18.9	44.4	24.7	7.0
	대학원졸	6.0				4.3	17.0	44.7	27.7	6.4
	없음	4.4			2.9	14.7	44.1	29.4	8.8	

*:p <0.05, **:p<0.01, ***:p<0.001

4. 政治主體에 대한 政治意識

정치주체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을 인지, 감정, 평가로 분류하여 인지수준에서는 정치주체에 대한 이해, 감정수준에서는 정치적 애착에 대한 감정, 평가 수준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정치주체에 대한 인지

초등학생의 정치주체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활동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 6학년,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정도가 중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주체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P<0.05$), 거주지별($P<0.001$)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변인에서는 유의한 점이 없었다.



<표-14> 정치주체의 인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 · D	반 응 구 분 (%)				
			국 민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계
780	2.90	2.47	58.1	16.2	24.7	1.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df	P	반응 구분(%)			
					국민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성별	남	52.3	11.	.011*	55.6	14.7	29.2	0.5
	여	47.7	142		60.8	17.7	19.9	1.6
학년별	5학년	49.9	4.079	.253	54.8	18.0	26.0	1.3
	6학년	50.1			61.4	14.3	23.5	0.8
거주지별	제주시	38.5	30.494	.000***	51.0	19.3	28.3	1.3
	북제주군	26.4			64.6	9.7	25.7	0.0
	서귀포시	17.6			51.5	21.2	25.5	2.2
	남제주군	17.6			70.8	13.9	14.6	0.7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451	.798	57.8	12.4	29.1	0.8
	중	61.4			58.7	18.0	22.3	1.0
	하	5.5			53.5	18.6	25.6	2.3
아버지의 학력별	중졸	7.6	10.329	.587	4.9	16.9	32.2	1.7
	고졸	50.0			60.2	14.4	24.7	0.8
	대학교졸	31.2			57.6	18.9	22.2	1.2
	대학원졸	6.0			59.1	10.6	29.8	0.0
	없음	4.4			50.0	23.5	23.5	2.9

*:p <0.05, **:p<0.01, ***:p<0.001

2)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

초등학생의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은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5> 정치주체의 감정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계
780	2.48	0.97	2.6	7.9	43.5	27.1	19.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df	P	반응구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성별	남	52.3	7.321	4	.120	3.4	9.8	43.1	25.5	18.1
	여	47.7				1.6	5.9	43.8	28.8	19.9
학년별	5학년	49.9	2.946	4	.567	2.1	8.7	41.4	27.5	20.3
	6학년	50.1				3.1	7.2	45.5	26.6	17.6
거주 지별	제주시	38.5	22.633	12	.031*	2.3	7.0	36.7	29.3	24.7
	북제주군	26.4				1.9	11.2	48.1	21.8	17.0
	서귀포시	17.6				3.6	8.0	45.3	28.5	14.6
	남제주군	17.6				2.9	5.1	49.6	28.5	13.9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22.222	8	.005**	2.3	9.7	41.5	25.2	21.3
	중	61.4				1.9	6.7	44.9	29.0	17.5
	하	5.5				11.6	11.6	39.5	16.3	20.9
아버지 의 학력별	중졸	7.6	31.237	16	.013*	0.0	5.1	47.5	30.5	16.9
	고졸	50.0				2.0	7.6	44.6	28.2	17.6
	대학교졸	31.2				4.1	6.6	43.6	25.9	19.8
	대학원졸	6.0				2.1	25.5	31.9	19.1	21.3
	없음	4.4			2.9	2.9	38.2	26.5	29.4	

*:p <0.05, **:p<0.01,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의 부정적인 반응이 남학생의 부정적인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이 6학년 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주별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부정적이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생활정도가 상인 학생과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거주지별($P<0.05$),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1$), 아버지의 학력별($P<0.05$)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

초등학생의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6> 정치주체의 평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계
780	3.00	0.93	3.2	22.9	50.6	16.3	6.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비 (%)	n	df	P	반 응 구 분(%)										
						매우 많이	많이	조금	매우 조금	전혀 못함						
성 별	남	52.3	12.	4	.012*	3.9	25.7	48.3	15.2	6.9						
	여	47.7	844								2.4	19.9	53.2	17.5	7.0	
학년별	5학년	49.9	11.	4	.022*	3.6	21.3	47.3	18.5	9.3						
	6학년	50.1	420								2.8	24.6	54.0	14.1	4.6	
거주 지별	제 주 시	38.5	13.	12	.310	3.3	21.7	46.7	20.3	8.0						
	북제주군	26.4									861	2.9	28.2	49.5	12.6	6.8
	서귀포시	17.6									3.6	23.4	54.7	13.1	5.1	
	남제주군	17.6									2.9	17.5	56.9	16.1	6.6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17.	8	.022*	5.4	22.5	53.1	12.4	6.6						
	중	61.4									945	1.7	23.8	49.9	18.2	6.5
	하	5.5									7.0	16.3	44.2	18.6	14.0	
아버지 의 학력별	중 졸	7.6	29.	16	.019*	1.7	27.1	42.4	20.3	8.5						
	고 졸	50.0									815	2.3	23.9	53.9	15.9	4.0
	대학교졸	31.2									4.5	21.0	47.3	17.3	9.9	
	대학원졸	6.0									8.5	27.7	48.9	4.3	10.6	
	없 음	4.4									0.0	11.8	52.9	23.5	11.8	

*:p <0.05, **:p<0.01,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이 5학년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 정도가 상인 학생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졸인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P<0.05)과 학년별(P<0.05), 가정의 생활 정도별(P<0.05), 아버지의 학력별(P<0.05)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주지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의식 구조 분석모형 틀에 따라 정치의식 구조를 나타내 보면 <표-17>과 같다. 38)

<표-17> 政治意識 구조 분석결과

정치적 대상 정치 의식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
지 식	+ 반응	- 반응	+ 반응	+ 반응
감 정	+ 반응	- 반응	+ 반응	- 반응
평 가	+ 반응	+ 반응	+ 반응	+ 반응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 차원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입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와 감정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평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정치인 대하여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한국정치의 불안정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 차원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산출과정 요소인 도청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과 정부의 정책 시행에 관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은

38) 정치의식 구조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이 2.5보다 높은 경우를 긍정적 반응(+반응)으로 해석하였고, 2.5보다 낮은 경우를 부정적 반응(-반응)으로 해석하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주체에 대한 정치의식을 살펴보면 인지·평가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감정적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자신을 능동적인 정치행위자로 인식하고 있고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 애착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체제와 산출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투입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政治的 關心의 時期와 媒體

정치의식 형성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정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매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로 나누어 전체적인 반응과 배경 변인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



정치의식 형성에 관한 내용 중 아동들의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5·6학년(49.4%), 3·4학년(11.8%), 1·2학년(2.8%)순으로 나타났고, 관심이 없다는 반응(36.0%)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8>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반응 구분 (%)				
	1,2학년	3,4학년	5,6학년	관심 없다	계
780	2.8	11.8	49.4	36.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반응 구분 (%)			
			1,2학년	3,4학년	5,6학년	관심 없다
성별	남	52.3	3.9	13.2	48.5	34.3
	여	47.7	1.6	10.2	50.3	37.6
학년별	5학년	49.9	3.3	15.4	41.6	39.6
	6학년	50.1	2.3	8.2	57.0	32.5
거주지별	제주시	38.5	4.0	13.0	45.3	37.3
	북제주군	26.4	1.9	13.6	51.9	32.5
	서귀포시	17.6	1.5	10.2	51.1	37.2
	남제주군	17.6	2.9	8.0	52.6	36.5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1.9	13.2	49.6	35.3
	중	61.4	2.7	10.6	50.1	36.5
	하	5.5	9.3	16.3	39.5	34.9
아버지의 학력별	중졸	7.6	1.7	15.3	50.8	32.2
	고졸	50.0	2.5	10.8	50.4	36.3
	대학교졸	31.2	2.9	12.8	53.1	31.3
	대학원졸	6.0	4.3	14.9	36.2	44.7
	없음	4.4	5.9	5.9	26.5	61.8

*:p <0.05, **:p<0.01,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학년별로는 6학년(32.5%)이 5학년(39.6%)보다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37.9%)이 남학생(34.3%)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37.3%), 서귀포시(37.2%), 남제주군(36.5%), 북제주군(32.5%)의 순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중(36.5%), 상(35.7%), 하(34.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

초등학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지식을 얻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치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매스미디어(40.3%), 교사(26.5%), 부모(24%), 동료(2.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정치에 관한 지식을 얻을 때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9>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반 응 구 분 (%)					
	매스 미디어	부 모	교 사	동 료	기 타	계
780	40.3	24.0	26.5	2.3	6.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반 응 구 분(%)				
			매스미 디어	부 모	교 사	동 료	기 타
성 별	남	52.3	40.0	27.0	23.0	2.7	7.4
	여	47.7	40.6	20.7	30.4	1.9	6.5
학년별	5학년	49.9	36.8	27.5	26.7	2.1	6.9
	6학년	50.1	43.7	20.5	26.3	2.6	6.9
거주 지별	제 주 시	38.5	47.7	26.3	23.0	1.3	1.7
	북제주군	26.4	26.2	18.9	27.2	0.7	1.5
	서귀포시	17.6	45.3	25.5	27.0	0.7	1.5
	남제주군	17.6	40.1	24.8	32.8	0.7	1.5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35.3	27.9	28.7	2.3	5.8
	중	61.4	42.2	22.3	25.7	2.1	7.7
	하	5.5	48.8	18.6	23.3	4.7	4.7
아버지의 학력별	중 졸	7.6	39.0	22.0	32.2	3.4	3.4
	고 졸	50.0	40.3	20.9	28.5	2.3	8.1
	대학교졸	31.2	41.2	27.6	23.5	2.1	5.8
	대학원졸	6.0	31.9	34.0	23.4	2.1	8.5
	없 음	4.4	47.1	23.5	20.6	2.9	5.9

*:p <0.05, **:p<0.01,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의 순위를 보면 여학생은 매스미디어(40.6%), 교사(30.4%), 부모(20.7%)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은 매스미디어(40.0%), 부모(27.0%), 교사(23.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의 순위를 보면 5학년은 매스미디어(36.8%), 부모(27.5%), 교사(26.7%), 동료(2.1%)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학년은 매스미디어(43.7%), 교사(26.3%), 부모(20.5%), 동료(2.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

초등학생들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표-2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44.9%), 부모(29.2%), 교사(15.1%), 동료(7.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데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의 순위는 여학생은 매스미디어(45.4%), 부모(29.85%), 교사(15.6%), 동료(6.5%)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도 매스미디어(44.4%), 부모(28.7%), 교사(14.7%), 동료(4.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5학년은 매스미디어(40.1%), 부모(31.4%), 교사(16.5%), 동료(3.1%)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학년도 매스미디어(49.6%), 부모(27.1%), 교사(13.8%), 동료(5.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0>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N	반 응 구 분 (%)					
	매스미디어	부 모	교 사	동 료	기 타	계
780	44.9	29.2	15.1	3.5	7.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반 응 구 분(%)				
			매스 미디어	부 모	교 사	동 료	기 타
성 별	남	52.3	44.4	28.7	14.7	4.2	8.1
	여	47.7	45.4	29.8	15.6	2.7	6.5
학년별	5학년	49.9	40.1	31.4	16.5	3.1	9.0
	6학년	50.1	49.6	27.1	13.8	3.8	5.6
거주 지별	제 주 시	38.5	53.3	30.0	11.3	3.7	1.7
	북제주군	26.4	29.6	24.8	19.9	4.4	21.4
	서귀포시	17.6	48.9	32.1	13.9	2.2	2.9
	남제주군	17.6	45.3	31.4	17.5	2.9	2.9
가정의 생활 정도별	상	33.1	39.1	33.7	17.1	2.7	7.4
	중	61.4	47.6	27.3	14.0	4.0	7.1
	하	5.5	48.8	23.3	16.3	2.3	9.3
아버지의 학력별	중 졸	7.6	37.3	32.2	20.3	0.0	10.2
	고 졸	50.0	44.8	26.4	15.9	3.8	9.1
	대학교졸	31.2	47.7	31.7	11.5	3.8	9.1
	대학원졸	6.0	42.6	31.9	19.1	4.5	4.5
	없 음	4.4	41.2	35.3	17.6	0.0	5.9

*:p <0.05, **:p<0.01, ***:p<0.001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정치의식 구조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 구조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치적 대상을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정치적 정향의 요소인 인지·감정·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와 매체를 통하여 정치의식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집방법은 제한표본추출(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군집표집방법 (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초등학교의 학생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4개 학교, 서귀포시 지역 2개 학교, 북제주군 지역 3개 학교, 남제주군 지역 2개 학교 등 총 10개 초등학교 78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에 의한 전차별 집단 분석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검증을 첫째, 제주도 초등학교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밖의 배경 변수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은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생활 정도가 상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류층 가정의 학생일수록 정치체제의 구성 요소 중 정치적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 정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들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초등학교생의 투입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와 감정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평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입과정에 대한 인지는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집단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밖의 배경 변수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투입과정에 대한 감정은 여학생, 6학년, 제주시 거주하는 학생, 가정 생활 정도가 하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하류층 가정의 학생일수록 투입과정의 구성 요소 중 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입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 정도가 하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제주도 초등학교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출과정 대한 인지는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그 밖의 배경 변수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산출과정에 대한 감정은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과 가정의 생활 정도가 상인 학생일수록 산출과정의 요소 중 공무원에 대해서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산출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학생, 5학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 정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제주도 초등학교생의 정치주체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평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감정적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주체에 대한 인지는 여학생과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배경 변수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주체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의 생활 정

도가 상인 학생, 아버지가 없는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이 5학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가정의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한 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정치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5·6학년(49.4%)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36.0)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지식을 얻는 매체의 순위를 보면 매스미디어(40.3%), 교사(26.5%), 부모(24%), 동료(2.3%)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 영향을 받는 매체는 매스미디어(44.9%), 부모(29.2%), 교사(15.1%), 동료(7.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정치적 평가를 내릴 때도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의식 구조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체제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일체감도 잘 형성되어 애국심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투입과정의 요소 중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낮게 나타나고 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바르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치집단의 분파주의, 여야 간의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 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 초등학생의 산출과정에 대한 정치의식은 인지·감정·평가의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청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공무원들이 과거 복지부동의 자세와 권위주의·형식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주체에 대한 정치의식은 감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초등학생 집단에서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다섯째, 정치의식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체는 매스미디어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2차적 혹은 보완적인 것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로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정치의식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바람직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즉 학생들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정보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고등의 정신기능을 갖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정치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능, 가치관 등을 구성원들이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며, 민주주의 원리에 의한 자치활동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언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 매체를 통해 정치적 지식을 얻으며,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

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교육은 학습자의 정치적 경험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는 학습자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정치사회화 매체로서 학교의 재사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매스컴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정치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언론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 單行本 >

1. 강휘원 외(2000), 「 현대 정치의 이해 », 역락출판사.
2. 김운태(1990), 「 정치학원론 », 박영사.
3. 김재영 외(1990), 「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 형설출판사.
4. 김재영(1983), 「 정치사회화 », 대왕사.
5. 김태창(1986), 「 현대정치학입문 », 형설출판사.
6. 백상건(1992), 「 정치학 강의 », 박영사.
7. 오명호(1990), 「 현대정치학이론 », 박영사.
8. 이극찬(1999), 「 정치학 », 법문사.
9. 이범준 · 신승권(1988), 「 정치학 », 박영사.
10. 이순형(1994), 「 정치사회화 », 서울대학교출판부.
11. 이정식 외(1994), 「 정치학 », 대왕사.
12. 정세구 역(1981), 「 정치사회화 », 법문사.

< 論文 >

강철승(1999), “韓國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調査研究”,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수홍(1992), “兒童의 政治意識 發達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영(1981), “政治社會化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종천(1992), “民主發展을 위한 政治社會化過程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순(1995), “學校教育이 어린이의 政治社會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중남(1999), “靑少年의 政治意識과 政治社會化에 關한 調査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화식(1993), “兒童들의 政治社會化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희병(1993), “韓國 初等學敎에서의 政治社會化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욱(1988), “韓國初等學敎의 政治社會化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군진(1994), “濟州道 高等學生의 政治意識”,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nalyz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 Focus on Fifth and Sixth Grade -

Park, Shin-Young

**Major in So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Jeju**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uck-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political education which needs for building up a desirable political idea with analyz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for fifth and sixth grad elementary student in Jeju-Do.

Based on the analytical model of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is study political objects are divided into a political system, the process of input and output and the main body of politics, and each of them is analyzed into cognition, aff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s. Also,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nsciousness is examined on the basic of the time they have interests in, a medium they have information from and a medium they are influenced for evaluating the political efforts.

Cluster sampling technique through restricted sampling is used in this

study.

With regard to the elementary student number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Do, total 780 elementary students from 4 schools in Jeju city, 2 schools in Seogwipo city, 3 schools in Bukjeju and 2 schools in Namjeju are investigated. Collected data is taken over by

The result of analyz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is as follows. Contents and statistics is analyzed by percentage and χ^2 method.

First,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its system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 -Do shows positive reaction in all of cognition, aff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s.

Seco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rocess of input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shows a negative reaction in cognition and affection, but positive reaction in evaluation.

Thir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rocess of output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shows positive reaction in all of cognition, aff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s.

Fourth,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main body of politics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shows positive reaction in cognition and evaluation, but negative reaction in affection.

Fifth, The time when they show the interests in politics is fifth and sixth grade (49.4%) and there is a quite high percentage for the indifference toward politics (36.0%). Elementary students get political knowledge in due order of mass media, their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nd they have influence on in due order of mass media, there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to evaluate the political efforts. Students have most influence on mass media for political knowledge and evaluation and their teachers are the next to influence them for political knowledge and parents are the next for political evaluation.

An idea can be obtained through analyz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its system shows positive reaction in all of cognition, aff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s. It means that the comprehension for political system is building up rightly and patriotism is high due to forming the national unity.

Second, understanding of civil organization among the elements of the process of input shows low level. To solve this problem, students have the right knowledge for civil organization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The confidence in politician shows low level and it results from factionism and extreme confrontation among political authorities. Therefore, removing the bad images, politicians have to make efforts to be an able politician and place the nation's welfare in advance.

Thir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rocess of output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shows positive reaction in all of cognition, aff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s and it means that students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for a provincial office and shows positive reaction in carrying out a policy. Getting the high confidence in governmental officers is the result from changing their authoritarianism

and formalism attitude to kind service for people.

Fourth,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main body of politics shows negative reaction in affection and it means that political apathy is rising high for elementary students in Jeju-Do. It will be needed for students to lead them to have interests in politics and take part in it.

Fifth, mass media has most influence on form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Therefore, mass media has to be considered as not only supplement, but also the important medium to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질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정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니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2월 6일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박신영 드림

※ 다음 내용을 끝까지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 것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그런 것 같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닌 것 같다 ⑤ 확실히 아니다
2.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그런 것 같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닌 것 같다 ⑤ 확실히 아니다
3. 여러분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항상 공평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그런 것 같다 ③ 모르겠다
④ 아닌 것 같다 ⑤ 확실히 아니다
4. 여러분은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매우 조금 ⑤ 전혀 못함
5.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매우 조금 ⑤ 전혀 못함

6.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매우 조금 ⑤ 전혀 못함
7.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매우 조금 ⑤ 전혀 못함
8.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매우 조금 ⑤ 전혀 못함
9.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 ② 대통령의 역할
 ③ 국회의원의 역할 ④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10. 여러분은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활동 ② 사람의 민원을 처리하는 활동
 ③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④ 법을 만들고 고치는 활동
11. 여러분은 도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을 만드는 일 ② 도둑과 강도를 잡는 일
 ③ 도민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일 ④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
12. 정치활동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민 ② 국회의원 ③ 대통령 ④ 도지사
13. 여러분은 언제부터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2 학년부터 ② 3,4학년부터 ③ 5,6학년부터 ④ 관심 없다
14. 여러분은 정치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① 매스미디어 ② 부모 ③ 교사 ④ 동료 ⑤ 기타
15.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① 매스미디어 ② 부모 ③ 교사 ④ 동료 ⑤ 기타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물음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의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17. 여러분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8. 살고 있는 곳은? : ① 제주시 ② 북제주군 ③ 서귀포시 ④ 남제주군

19. 여러분의 가정 생활 정도는?

① 잘 사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어렵다

20. 여러분의 아버지 교육 정도는?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